

특별전

이케노 다이가 池 大雅

— 여행의 세계를 그린 꾸밈없는 화가 —



작품목록

2018.4.7.(토)~5.20.(일) 오전 9:30 - 오후 6:00 < 야간 개관(금·토) 오전 9:30 - 오후 8:00 >

교토국립박물관 헤이세이 지신관

주최 교토국립박물관, 요미우리 신문사
 협찬 시미즈 건설, 다이와 하우스 공업, 노자키 인쇄 지업, 비파괴검사 주식회사
 협력 일본 향당

※ 전시 기간 안내
 전기 4.7.(토) - 4.30.(월·공휴일) 후기 5.2.(수) - 5.20.(일)
 ※ 목록의 회색 부분은 상세 전시 기간입니다.
 ※ 번호는 도록 번호입니다. 전시 순서와는 일치하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 사정에 의해 전시 작품 및 전시 기간이 변경될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 에도시대 (1615-1868)
 중국, 명시대 (1368-1661)
 중국, 청시대 (1644-1912)
 문화재 지정: ● 국보 / ◎ 중요문화재

번호	문화재 지정	작품명	작자	찬자	시대/연도	소장	전기 전시			후기 전시		
							4.7 4.15	4.17 4.22	4.24 4.30	5.2 5.6	5.8 5.13	5.15 5.20
제 1장 천재의 등장-이케노 다이가와 주변 사람들												
1		이케노 다이가 초상	후쿠하라 고가쿠		에도시대 (18세기)	교토국립박물관						
2		이케노 다이가 초상 · 요렌 초상 · 바이사이오 초상	미쿠마 시코	자찬(自贊)	덴메이 6년 (1786)							
3		미카미 고켄 · 이케노 다이가의 대화	이케노 다이가	자찬(自贊)	에도시대 (18세기)	도쿄예술대학						
4		이케노 다이가 족보			에도시대 (19세기)	기요시코진 덧사이 미술관						
5		겐카도 잡록	야카쓰키 가네나 리 편집		안세이 6년 (1859) 간행	교토국립박물관						
6		이케노 다이가가 살던 집	노로 가이세키		간세이 4년 (1792)	교토부 (이케노 다이가 미술관 컬렉션)						
7		다이가도(大雅堂) 옛 터	전(傳) 겿포		에도시대 (19세기)							
8		여의관음상 및 불감			중국 명~청시대 (17~18세기)	교토부 (이케노 다이가 미술관 컬렉션)						
9		이케노 다이가 외 사용 인장 및 인보(印譜)			에도시대 (18세기)							
10		이케노 다이가가 직접 새긴 인장 등			에도시대 (18세기)							
11		삼현금 (이케노 다이가가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짐) 이케노 다이가 · 도바 다이로쿠 증명서 첨부			중국 청시대 (18세기)							
12		이케노 마타지로 신동에게 보내는 계송 * 이케노 마타지로: 이케노 다이가의 아명	고도 겐초		교호 14년 (1729)	교토부 (이케노 다이가 미술관 컬렉션)						
13		독락원(獨樂園, 중국 사마광의 정원 이름)에 대한 글	이케노 다이가		교호 19년 (1734)	교토부 (이케노 다이가 미술관 컬렉션)						
14		구름 낀 숲의 푸른 새벽	이케노 다이가	대봉 정곤 (다이호 쇼곤)	호랴쿠 8년 (1758) 경							
15		모란과 작은 새	가쿠테이	대봉 정곤 (다이호 쇼곤)	호랴쿠 8년 (1758)	나가사키 역사문화박물관						
16		아사마산 진경	가쿠테이	이케노 다이가 · 고 후요	에도시대 (18세기)							
17		편지 (가쿠테이와 그 제자들 앞으로 보냄)	이케노 다이가		안에이 2년 (1773)							
18		폭포를 바라보는 선비	사카키 하쿠센	이케노 다이가	엔쿄 원년 (1744)							
19		편지 (후시 시바에게 보냄)	이케노 다이가		간엔 4년 (1751)							
20		산골짜기의 가을	이케노 다이가	야나기사와 기엔	에도시대 (18세기)							

번호	문화재지정	작품명	작자	찬자	시대/연도	소장	전기 전시			후기 전시		
							4.7 4.15	4.17 4.22	4.24 4.30	5.2 5.6	5.8 5.13	5.15 5.20
21		장중경(張仲景) 초상	이케노 다이가	고 후요	간에이 2년 (1749)							
22		죽리관(竹里館, 왕유의 별장)	이케노 다이가	고 후요	에도시대 (18세기)	이데미쓰미술관						
23		산수	고 후요		간엔 2년 (1749)							
24		산수	간 덴주	호소아이 한사이 · 가쓰 시킨 · 이케노 다이가	메이와 5년 (1768)							
25		편지 (간 덴주에게 보냄)	이케노 다이가		에도시대 (18세기)							
26		대나무와 돌	이케노 다이가	미야자키 인포	에도시대 (18세기)							
27		바이사이오 초상	이케노 다이가	켓카이 겐쇼 (바이사이오)	에도시대 (18세기)	이데미쓰미술관						
28		표주박과 메기	이케노 다이가	바이소 겐조	에도시대 (18세기)	이데미쓰미술관						
29		초충 선사에게 침삭을 부탁한 시와 서문의 초고	이케노 다이가		메이와 7년 (1770)							
30		버들과 개구리	이케노 다이가	세쓰도 뇨운	에도시대 (18세기)							
31		하쿠인(白隱) 선사를 받들어 입문하는 계승	이케노 다이가		에도시대 (18세기)							
32		구즈노하 [전설 속 너구리]	이케노 다이가	하쿠인 엔카쿠	에도시대 (18세기)							
33		배도존자 초상	이케노 다이가	자찬(自贊)	에도시대 (18세기)	다나베미술관						
34		산수	이케노 다이가	고신 겐메이 · 슈난 조주	호랴쿠 원년 (1751)							
35		기무라 겐카도에게 보내는 글	이케노 다이가		에도시대 (18세기)							
36		기무라 겐카도에게 보내는 편지	이케노 다이가		호랴쿠 6년 (1756)							
37		기무라 겐카도에게 보내는 편지	이케노 다이가		에도시대 (18세기)							
38		하쿠조즈 [승려가 된 백여우]	이케노 다이가	이와가키 류케이	에도시대 (18세기)							
39		귀신에게 불법을 권하다	이케노 다이가	긴류 도진	에도시대 (18세기)							
40		깊은 숲속의 독서	이케노 다이가		에도시대 (18세기)							
41		다이가도 건축을 위한 연명장			덴메이 4년 (1784)	교토부 (이케노 다이가 미술관 컬렉션)						
42		이케노 다이가 25주기 추모식 안내장			간세이 12년 (1800)	오사카 시립미술관						

제 2장 중국의 화보에서 중국회화를 배우다 (* 화보: 중국회화 도감)

43		개자원화전 [초집(初集)]			중국 강희 18년 (1679) 서						
44		팔중화보			호에이 7년 (1710) 간행	교토국립박물관					
45		원명칭 서화인명록	사카키 하쿠센 편 집, 기무라 겐카 도 등 증보·개정		안에이 6년 (1777) 간행						
46		네 종류의 회화 양식	이케노 다이가		호랴쿠 12년 (1762)		두 권		두 권		
47	◎	가을 산수 (야나기사와 기엔과 이케노 다이가의 발문)	장서도		중국 명시대 (17세기)	세이카도문고 미술관					
48		동기창의 글씨 (이케노 다이가 발문)	동기창		중국 명시대 (17세기)						
49		안개 낀 듯 고요한 산수	이형		중국 명시대 (17~18세기)						
50		갈대와 기러기	조순	자찬(自贊)	중국 송경 14년 (1641)						
51		오백나한도	전(傳) 왕진봉		중국 명시대 (16~17세기)	만푸쿠지 절					
52		위성 땅의 푸른 버들	이케노 다이가		엔쿄 원년 (1744)	쓰루이미술관 (니가타 시)					
53		가을 물가의 대화	이케노 다이가		엔쿄 원년 (1744)						
54		대나무와 매화 서로 푸르다	이케노 다이가	이토 란구	엔쿄 2년 (1745)						
55		비바람 속에서 승천하는 용	이케노 다이가		엔쿄 3년 (1746)						
56		한퇴지(韓退之, 한유) 초상	이케노 다이가		엔쿄 3년 (1746)						
57		하선고 초상	이케노 다이가	슈로 안	엔쿄 4년 (1747)	도쿄예술대학					

번호	문화재지경	작품명	작자	찬자	시대/연도	소장	전기 전시			후기 전시		
							4.7 4.15	4.17 4.22	4.24 4.30	5.2 5.6	5.8 5.13	5.15 5.20
58		영소의 연꽃 향기	이케노 다이가		엔쿄 4년 (1747)							
59		서호	이케노 다이가		에도시대 (18세기)							
60		약양루	이케노 다이가		에도시대 (18세기)							
61		적벽의 뱃놀이	이케노 다이가		간엔 원년 (1748)							
62		산수를 그린 병풍	이케노 다이가		엔쿄 5년 (1748)							
63		하늘이 낸 진귀한 꽃	이케노 다이가		간엔 2년 (1749)	교토부 (이케노 다이가 미술관 컬렉션)						
64		가을 경치	이케노 다이가		간엔 2년 (1749)							
65		서호를 그린 병풍	이케노 다이가	호주 소순	간엔 2년 (1749)		오른쪽 폭		왼쪽 폭			
66	◎	소동파의 전적벽부와 후적벽부를 그린 병풍	이케노 다이가	자찬(自贊)	간엔 2년 (1749)							
67	◎	은자를 찾아온 선비를 그린 병풍	이케노 다이가		간엔 3년 (1750)	교토부 (이케노 다이가 미술관 컬렉션)						
68		악지론(樂志論, 즐겁게 사는 삶을 논하다)	이케노 다이가		간엔 3년 (1750)	우메자와기념관						
69		가을 강 위 돌아가는 배	이케노 다이가		간엔 4년 (1751)							

제 3장 지목화를 통한 양식의 모색 (* 지목화: 손가락으로 그리는 그림)

70		손가락으로 그린 산수 [지목산수]	이케노 다이가	슈난 조주	엔쿄 2년 (1745)	야마타네미술관					
71		버드나무가 있는 시내를 건너는 풍경	이케노 다이가		엔쿄 3년 (1746)	지바시미술관					
72		손가락으로 그린 산수 [지목산수]	이케노 다이가	하쿠세쓰 겐요	엔쿄 4년 (1747)						
73		한산과 습득 [한산습득도]	이케노 다이가	자찬(自贊)	에도시대 (18세기)	교토국립박물관					
74		악기를 연주하는 도깨비	이케노 다이가		에도시대 (18세기)						
75		혜원 선사가 사는 초가집 · 도연명과 육수경을 그린 병풍	이케노 다이가		에도시대 (18세기)						
76		눈과 달과 꽃	이케노 다이가		에도시대 (18세기)						
77		난초와 돌	이케노 다이가	류 고비	에도시대 (18세기)	교토부 (이케노 다이가 미술관 컬렉션)					
78		봄 산수	이케노 다이가	자찬(自贊)	에도시대 (18세기)						
79		깊은 계곡 낚싯배	이케노 다이가		에도시대 (18세기)	와키무라 장학회					
80		푸른 봉우리에서 떨어지는 폭포	이케노 다이가		에도시대 (18세기)						
81		귀거래(歸去來) 그림	이케노 다이가		에도시대 (18세기)						
82		난정곡수도 에마 밀그림 * 난정곡수: 난정의 굽이치는 물가에서 하는 시짓기 놀이	이케노 다이가		호랴쿠 4년 (1754)						
83		서호의 경치를 그린 병풍	이케노 다이가		호랴쿠 9년 (1759)	도쿄 레이메이 아트룸					
84		고요한 적벽의 뱃놀이	이케노 다이가		에도시대 (18세기)						
85		신선이 사는 산의 누각	이케노 다이가		에도시대 (18세기)	지바시미술관					
86		사계절의 안개	이케노 다이가		에도시대 (18세기)						
87		골짜기 밑 정자에서 바라보는 고기잡이	이케노 다이가		에도시대 (18세기)						
88		신선이 사는 산의 누각	이케노 다이가		에도시대 (18세기)	다나베미술관					
89		벼랑길	이케노 다이가		에도시대 (18세기)						
90		숲속 초가집	이케노 다이가		에도시대 (18세기)						
91		침향정에서 보는 꽃 · 단풍나무 숲에서 세운 수레를 그린 병풍	이케노 다이가	자찬(自贊)	에도시대 (18세기)	오카다미술관					

제 4장 이케노 다이가의 그림과 서예

92		천자문	이케노 다이가		메이와 8년 (1771)	교토부 (이케노 다이가 미술관 컬렉션)					
----	--	-----	---------	--	---------------	-----------------------------	--	--	--	--	--

번호	문화재 지정	작품명	작자	찬자	시대/연도	소장	전기 전시			후기 전시		
							4.7 4.15	4.17 4.22	4.24 4.30	5.2 5.6	5.8 5.13	5.15 5.20
93		'해는 동남쪽에서 떠올라(日出東南隅行)'를 쓴 서첩	이케노 다이가		에도시대 (18세기)							
94		사계절 산수	이케노 다이가		호랴쿠 5년 (1755)	MOA미술관						
95		오군영(五君詠, 위긴 청담의 다섯 군자)	이케노 다이가		에도시대 (18세기)							
96		멀리서 바라 본 강물에 비친 달	이케노 다이가	자찬(自贊)	에도시대 (18세기)							
97		관음	이케노 다이가	자찬(自贊)	에도시대 (18세기)							
98		두소릉(杜少陵, 두보)의 망악시(望嶽詩)	이케노 다이가		간엔 3년 (1750)							
99		당시를 다섯 가지 서체로 쓴 서화첩	이케노 다이가		에도시대 (18세기)	우메자와기념관						
100		피어오르는 구름과 밀려드는 물결	이케노 다이가	자찬(自贊)	에도시대 (18세기)							
101		삼황도(三皇圖)	이케노 다이가	자찬(自贊)	에도시대 (18세기)							
102		수로인(壽老人, 팔복신 중 하나)과 사계절 산수	이케노 다이가	자찬(自贊)	호랴쿠 11년 (1761)	이데미쓰미술관						
103		천마부(天馬賦)	이케노 다이가		에도시대 (18세기)	덴주안 절						
104		일본 서체로 쓴 편지글 교본	이케노 다이가		안에이 2년 (1773)	교토부 (이케노 다이가 미술관 컬렉션)						
105		사계절 그림과 시	이케노 다이가	자찬(自贊)	에도시대 (18세기)							
제 5장 여행하는 화가-일본의 풍경을 그리다												
106		기산(箕山)의 폭포	이케노 다이가	자찬(自贊)	엔쿄 원년 (1744)							
107	◎	무쓰의 뛰어난 경치	이케노 다이가		간엔 2년 (1749)	규슈국립박물관						
108		아사마야마산 진경	이케노 다이가	자찬(自贊)	에도시대 (18세기)							
109		히에이잔산 진경	이케노 다이가	자찬(自贊) · 마쓰다이랴 빈	호랴쿠 12년 (1762)	네리마 구립미술관						
110		요시노야마 산	이케노 다이가	자찬(自贊)	에도시대 (18세기)	가와바타 야스나리 기념회						
111		삼악 기행 병풍	이케노 다이가		호랴쿠 10년 (1760)	교토국립박물관						
112		동기창의 산수화법을 모방하여 그린 후지산 (조선통신사 김유성에게 중국회화 기법을 묻다)	이케노 다이가		에도시대 (18세기)							
113		후지산 시라이토노 타키 폭포	이케노 다이가		호랴쿠 12년 (1762)							
114		시라이토노 타키 폭포 진경	이케노 다이가		에도시대 (18세기)							
115		후지산의 12 절경 (1, 3, 5, 6, 8, 11, 12월)	이케노 다이가		에도시대 (18세기)	도쿄예술대학						
116		후지산의 12 절경 (2, 4, 7, 10월)	이케노 다이가		에도시대 (18세기)	데키스미술관						
117		호수 위 구름 낀 후지산	이케노 다이가	자찬(自贊)	에도시대 (18세기)							
118		후지산(富岳) · 종남산(終南山, 왕유의 시) · 조발백제성(早發白帝城, 이백의 시)	이케노 다이가	자찬(自贊)	호랴쿠 13년 (1763)	지바시미술관						
119		일본의 12 절경	이케노 다이가		메이와 2년 (1765)							
120		교토 명소 6 절경 (기요미즈데라)	이케노 다이가 · 기온 난카이		에도시대 (18세기)							
121		아라시야마 오오이강을 그린 병풍	이케노 다이가		에도시대 (18세기)							
122		히가시야마 산	이케노 다이가	고 후요	에도시대 (18세기)	야마타네미술관						
123		나치(那智) 폭포	이케노 다이가		에도시대 (18세기)	도쿄국립박물관						
124		고지마만(瀧) 진경	이케노 다이가		에도시대 (18세기)	호소미술관						
125		연중행사를 그린 병풍	이케노 다이가		에도시대 (18세기)							
126		유보엔(楡枋園, 이와가키 류케이의 저택)	이케노 다이가		안에이 원년 (1772)	다이토쿠지 절						
127		앵무암 산수	이케노 다이가	자찬(自贊)	안에이 3년 (1774)	교토국립박물관						
제 6장 이케노 다이가와 그의 아내, 교쿠란												
128		이케노 다이가와 교쿠란이 살던 곳	전(傳) 겿포		에도시대 (19세기)							
129		근세기인전	반 고케이		간세이 2년 (1790) 간행	교토국립박물관						

번호	문화재지경	작품명	작자	찬자	시대/연도	소장	전기 전시			후기 전시		
							4.7 4.15	4.17 4.22	4.24 4.30	5.2 5.6	5.8 5.13	5.15 5.20
130		수묵으로 그린 국화	도쿠야마 교쿠란	이케노 다이가	에도시대 (18세기)							
131		소나무 골짜기의 신선경 · 매화와 바위의 은신처로 되돌아가다	이케노 다이가 · 도쿠야마 교쿠란	문추 조후쿠 · 고신 겐묘	에도시대 (18세기)	쓰루이미술관 (니가타 시)						
132		버들이 있는 연못 위 돌아가는 고깃배 · 산수	이케노 다이가 · 도쿠야마 교쿠란	이케노 다이가	에도시대 (18세기)	쓰루이미술관 (니가타 시)						
133		연속되는 산수와 글씨	도쿠야마 교쿠란 그림 · 이케노 다이가 쓰		에도시대 (18세기)							
134		기흥운연도	이케노 다이가		에도시대 (18세기)	에이세이문고						
135		다이가도(大雅堂) 화보	이케노 다이가 원화		교와 3년 (1803) 간행	에이세이문고						
제 7장 천재성의 발휘-완성된 다이가의 예술												
136	◎	난정곡수 · 용산승회를 그린 병풍	이케노 다이가	자찬(自贊)	호라쿠 13년 (1763)	시즈오카 현립미술관						
137		승왕각(勝王閣) 경치를 그린 병풍	이케노 다이가		에도시대 (18세기)							
138	◎	소상의 아름다운 정취를 그린 병풍	이케노 다이가		에도시대 (18세기)							
139		산수를 그린 병풍	이케노 다이가		에도시대 (18세기)							
140	●	누각 산수를 그린 병풍	이케노 다이가		에도시대 (18세기)	도쿄국립박물관						
141	◎	동산청음첩	이케노 다이가		에도시대 (18세기)							
142	●	산수와 인물을 그린 장벽화	이케노 다이가		에도시대 (18세기)	헨조코인 절	일부 작품 교체 있음					
143		물가의 누각	이케노 다이가		에도시대 (18세기)							
144		여산(廬山)의 전경	이케노 다이가	자찬(自贊)	에도시대 (18세기)							
145	◎	고기잡이의 즐거움	이케노 다이가		에도시대 (18세기)	교토국립박물관						
146		사계절 산수	이케노 다이가		에도시대 (18세기)	교토국립박물관						
147		열린 창문으로 더위를 피하다 · 촉(蜀)의 벵랑길	이케노 다이가		메이와 원년 (1764)							
148		버들 늘어진 물가 풍경	이케노 다이가		메이와 3년 (1766)							
149		청록산수 화첩	이케노 다이가		호라쿠 13년 (1763)	산토리미술관	그림 교체 있음					
150	◎	버드나무 밑 동자를 그린 병풍	이케노 다이가		에도시대 (18세기)	교토부 (이케노 다이가 미술관 컬렉션)						
151	◎	오백나한도	이케노 다이가		에도시대 (18세기)	만푸쿠지 절						
152	◎	서호	이케노 다이가		에도시대 (18세기)	만푸쿠지 절	일부 작품 교체 있음					
153	◎	서호의 봄 풍경 · 전당강의 밀물 구경 병풍	이케노 다이가		에도시대 (18세기)	도쿄국립박물관						
154		육원(六遠) 산수	이케노 다이가	시부이 다이시쓰 등	메이와 3년 (1766)	도쿄국립박물관						
155	◎	열두달 풍경이 연속된 산수 병풍	이케노 다이가		메이와 6년 (1769)	이데미쓰미술관						
156		관성제군(關聖帝君) 초상	이케노 다이가		메이와 8년 (1771)	오카다미술관						
157		무릉도원	이케노 다이가		에도시대 (18세기)	문화청						
158		단풍나무숲에 수레를 세우다	이케노 다이가	자찬(自贊)	에도시대 (18세기)	와키무라 장학회						
159	◎	흰 구름과 단풍 든 나무	이케노 다이가		에도시대 (18세기)	쇼코쿠지 절 조텐카쿠 미술관						
160		서호	이케노 다이가	자찬(自贊)	메이와 8년 (1771)	교토국립박물관						
161	◎	동경호 적벽	이케노 다이가	자찬(自贊)	메이와 8년 (1771)	교토국립박물관						
162	●	십편십의도	이케노 다이가 · 요사 부순		메이와 8년 (1771)	가와바타 야스나리 기념회	그림 교체 있음					

테마 소개

제 1 장 천재의 등장-이케노 다이가와 주변 사람들

이케노 다이는 은화를 제작하는 교토 긴자의 하급 관리인 부친에게서 태어났다. 어릴 적에 부친을 잃고 7 세 즈음부터 글 읽기와 쓰기를 배우기 시작하여 글씨에서 금방 재능을 발휘했는데, 만푸쿠지 절 12대 주지인 고도 겐초에게 신동이라고 극찬을 받을 정도였다. 7세 당시의 글씨는 남아 있지 않으나 12세에 쓴 <독락원(獨樂園, 중국 사마광의 정원 이름)에 대한 글>(작품번호 13)을 보면 어리지만 조숙한 다이의 필체를 느낄 수 있다.

15 세가 된 다이는 니조 히노쿠치초(二条樋之口町, 현재 가와라마치 니조 히가시 하이루 근처)에 부채 가게를 열고 생계를 이어갔다. 중국에서 들어온 회화 도감인 화보(畫譜)를 교본 삼아 부채에 그림을 그렸으며, 때로는 멀리까지 행상을 나가기도 하였으나 하나도 팔지 못하고 돌아오기 일쑤였다. 이처럼 곤궁했던 10 대 시절의 다이를 지탱한 것은 그의 예술을 이해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었다. 야마토코리야마 번주였던 야나기사와 기엔(柳沢 淇園)은 일찍이 다이의 재능을 알아보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다이가와 평생의 우정을 쌓은 전각가 고 후요(高 芙蓉), 서예가 간 덴주(韓 天壽)를 만난 것도 다이가가 19 세 되던 때의 일이다.

다이가 자신이 특별한 재능을 가진 것은 틀림없으나 세상에서 인정받는 인물로 성장하기까지, 그 여정에 이처럼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큰 작용을 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제 2 장 중국의 화보에서 중국회화를 배우다

젊은 시절, 이케노 다이는 『개자원화전(芥子園畫傳)』(작품번호 43)이나 『팔종화보(八種畫譜)』(작품번호 44)를 비롯한 중국의 화보(畫譜, 중국회화 도감)로부터 회화 기법을 익혔다. 특히 『개자원화전』은 단순한 그림본 모음집이 아니라 회화 이론, 회화 기법을 포함하고 있어 회화 학습서로서 환영받았다. 야나기사와 기엔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항상 참고해야 할 것은 개자원화전이다”(『히토리네(ひとりね)』)라고 한 것처럼, 다이가보다도 한 세대 이전의 초기 남화(南畫) 화가들도 즐겨 참고하였다. 다이는 중국의 화보에서 목판본의 구성법뿐만 아니라 색판 인쇄, 채색법, 판화 특유의 단단하고 예리한 선 등까지 받아들여 그림에 반영했다.

당시 한낱 시장터 화가에 불과했던 다이가에게 훌륭한 중국회화를 직접 볼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다이가가 중국회화를 직접 봤다는 것이 그림을 보관하는 상자에 명확하게 쓰여 있는 중국회화 작품도 있다. 특히 중국 원대 궁정화가였던 왕진봉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오백나한도>(작품번호 51)는 이케노 다이가 만년의 대표작인 <오백나한도>(작품번호 151)에 직접적 영향을 준 중요한 작품이다.

다이의 회화 예술은 40 대에 들어 완성을 이룬다. 그러나 중국회화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된 가운데에서도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자기 것으로 하고자 했던 20 대의 작품은 완숙기의 작품과는 또 다른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제 3 장 지묵화를 통한 양식의 모색

20 대 후반, 이케노 다이가는 붓 대신 손가락과 손톱으로 그림을 그리는 지묵화(지두화라고도 함)를 중심으로 많은 그림을 제작했다. 지묵화는 중국으로부터 전해져서 일본에서는 야나기사와 기엔 등에 의해 전개되었다. 즉흥적 강한 퍼포먼스 아트의 측면을 지닌 지묵화는 손가락으로 먹물을 다루기 때문에 붓을 쓰는 것에 비해 큰 제약이 따른다. 그러므로 붓을 사용할 때 보다는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기 어렵다. 게다가 결과보다는 제작 과정 자체가 중시되기도 하는데, 이 때문에 못 그린 그림이라는 오해를 피하고자 지묵화임을 밝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다이가는 지묵화가 가진 독특한 표현 스타일을 한계로 보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여 자신의 개성적인 양식에 포함했다. 손톱으로 그린 가늘고 뾰족한 선, 손바닥으로 감쪽같이 먹을 바르는 효과, 어눌하지만 두껍고 부드러운 선 등, 이 시기 이케노 다이의 지묵화 표현은 다이가 본인의 고유한 회화 양식이 형성되는 밑바탕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이후, 지묵화 표현이 갑자기 줄어드는 30 대에는 강한 우연성이 만들어내는 여러 요소를 실험했던 시행착오의 시기를 보낸다.

이케노 다이가에게 지묵화는 신기하기만 한 일시적 재주가 아니라, 자신의 표현 양식을 확립해가고자 했던 노력이 남긴 중요한 흔적이다.

제 4 장 이케노 다이가의 그림과 서예

7 세에 이미 만푸쿠지 절 주지로부터 신동이라는 칭찬을 들은 일이 상징하듯, 이케노 다이가는 화가뿐만 아니라 서예가로서도 이름을 날린 인물이다. 실제로 당시의 교토 문화인명록이라고 할 수 있는 『헤이안인물지』에서는 쇼와 5 년(1768)판과 안에이 4 년(1775)판 둘 다에 서예가로서 이케노 다이가의 이름이 실려 있다. 게다가 화가로서의 순번보다도 앞에 나와 있다는 점에서 그의 글씨에 관한 평판을 알 수 있다.

이케노 다이가의 서예 작품은 당시 유행하던 가라요(唐樣), 즉 중국풍 서예를 기초로 하면서도 누긋하며 격조 높은 스타일이 매력적이다. 젊은 시절 부채 전문점과 함께 인장 가게를 경영했다고 알려진 바와 같이, 다이가는 전서와 예서를 포함한 각 서체에 일찍이 통달했으며 중국 정통 서법을 자유자재로 다뤘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풍 서체로부터도 자유롭게 탈피한 독창적인 서법을 확립했다. 한편 궁정 시 그룹의 일인자인 레이제이 다메무라(冷泉 為村)로부터 와카를 배워, 일본 글자인 가나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서예 작품을 남겼다.

이 장에서는 다이가의 여러 서예 작품 중에서도 특히 그림과 훌륭한 조화를 이루는 서예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제 5 장 여행하는 화가-일본의 풍경을 그리다

이케노 다이가는 여행을 즐긴 화가이기도 했다. 26세 때, 에도[지금의 도쿄]에 머물던 다이가는 시오가마(塩竈)와 마쓰시마(松島) 지역[둘 다 지금의 미야기 현]으로 발을 돌렸는데, 곧 그곳의 아름다운 풍경에 마음을 빼앗겼다. 그다음 해에는 호쿠리쿠 지방을 두루 돌아다녔으며, 20대 후반에서 30대에 걸쳐 이세(伊勢)와 이즈모(出雲) 지역 등을 여행하기도 했다. 그중에서도 38세에 친구인 고 부요(高芙蓉)·간 덴주(韓天壽)와 함께 삼대 영산(靈山)인 하쿠산(白山)·다테야마(立山)·후지산(富士山)에 오른 긴 산행 여정이 유명하다. 이때 보았던 경관을 풍부하게 스케치한 <삼악 기행 병풍>(작품번호 111)에서 자세하게 알 수 있다. 또한, 이 여행의 성과는 <아사마야마산 진경>(작품번호 108)이라는 걸출한 풍경 표현을 낳아 에도시대 회화사를 빛냈다.

이케노 다이가의 여행은 ‘독만권서, 행만리로’, 즉 만 권의 책을 읽고, 만 리를 여행해야 위대한 화가가 될 수 있다는 중국 문인 화가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인 것이리라. 자주 여행하여 자연을 몸소 체험하는 것이야말로 훌륭한 산수화를 그리는 데 필요할 요소일 것이다. 여행지에서 체험한 자연을 바탕으로 한 풍경 표현(진경산수)은 이케노 다이가의 그림을 특징짓는 중심 테마가 된다. 그뿐만 아니라, 40대 이후에 그의 그림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넓은 공간 표현과 같은 고유한 표현 양식을 확립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제 6 장 이케노 다이가와 그의 아내, 교쿠란

이케노 다이가는 기온샤(현재 교토 야사카진자) 남문 앞에 있던 찻집(茶店) 마쓰야를 경영하던 집안의 딸, 도쿠야마 교쿠란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결혼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다이가의 나이 20대 후반으로 추정된다. 와카 시가집을 낼 정도로 와카 시를 잘 짓던 외조모와 모친의 영향을 받은 교쿠란 본인도 와카를 즐겼다. 또한, 교쿠란은 야나기사와 기엔으로부터 그림의 기초를 배우기도 했다. 현재 전해지는 교쿠란의 회화 작품은 다이가의 그림을 더욱 경쾌하고 부드럽게 한 양식으로 당시에 높은 인기를 자랑했다.

다이가와 교쿠란은 기온샤에서 가까운 마쿠즈가하라 지역(현재 교토 마루야마 공원 남쪽 음악당 근처)에 작은 초가집을 짓고 그곳에서 그림을 그렸다. 두 사람의 사이좋은 모습은 『근세기인전』(작품번호 129) 등 여러 책을 통해서도 전해지는데, 다이가가 삼현금을 타면 교쿠란이 고토(거문고와 비슷한 악기)를 함께 연주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 둘이 사이좋은 잉꼬부부였음을 알려주는 여러 일화도 다수 전해진다.

제 7 장 천재성의 발휘-완성된 다이가의 예술

다이가의 예술 세계는 40대 즈음에 이르러 자신의 완성된 양식을 만드는 데에 도달한다. 자유로운 붓놀림, 섬세한 색채, 명확한 화면 구성력 등, 가장 매력적인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시기가 바로 40대 후반이다. 국보와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대부분 작품이 바로 이 시기에 집중된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난정곡수·용산승회를 그린 병풍>(작품번호 136) 등, 40대 후반 이후에 제작되는 대화면 작품에 드러나는 훌륭한 공간 표현에는 젊은 날에 여행을 통해서 얻은 자연에 대한 체험이 반영되어 있다. 이케노 다이가에게 ‘여행’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도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다이가는 매력적인 대화면 작품뿐만 아니라, 보석 같은 족자와 화첩 형식의 작은 그림도 그려냈다. <십편십의도>(작품번호 162)와 <동산청음첩>(작품번호 141) 등에서 볼 수 있는 탁월한 화면 구성, 자유로운 표현이야말로 이케노 다이가의 작품이 지닌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